“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폭력 사태 잇달아…기독교인 최소 80명 사망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여러 마을에서 일련의 폭력 사태가 연이어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슬람국가(ISIS)가 이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80명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현지시각) ISIS 소속 연합민주군(ADF) 무장세력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기독교도가 대다수인 북키부 지방 베니 지역의 여러 마을에 조직적인 공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당국의 수치를 인용해 6월 초부터 연합군 민주군에 의해 거의 150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Open Doors)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성명을 내고 “사망자 중 최소 80명이 기독교인이다. 콩고민주공화국 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공격은 새로운 게 아니지만, 최근의 폭력 사태는 더 치명적이고 특히 이전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전했다.

오픈도어 아프리카 지역 담당자는 “ADF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속도는 끔찍하다. 이러한 공격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 농지, 생계를 떠나고 있다”고 했다.

오픈도어의 박해감시국가 목록에 따르면, 콩고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순위에서 41위를 기록했다. 동부 지역은 이슬람 무장세력, 조직범죄, 지역 무장세력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 단체는 기독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늘리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12개 이상의 무장단체와 100개 이상의 범죄 조직, 민병대가 콩고 동부에서 활동 중이다. 콩고군 대변인 막 하즈카이 중령은 지난 6월 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흘 만에 8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암울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줄리앙 팔루쿠(Julien Paluku) 전 북키부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점점 커지는 폭력 사태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람들은 옳든 그르든 자신들이 슬픈 운명에 버림을 받았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신명기 31:6)

하나님, 콩고민주공화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사 거세지는 박해로 낙망한 이들의 심령을 함께하신다는 약속으로 일으키시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조직적인 공격과 심한 폭력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중앙정부를 책망하시고, 성도들이 합당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결코 이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심이 아니라 박해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의 생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의 마음을 알아, 인내하며 끝내 승리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 '학생의 성적 지향' 학부모 공유 금지 법안 승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학생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1일 전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상원의회는 지난 6월 17일 하원법안 1955호(AB 1955)를 29대 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차터스쿨, 또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주립 특수학교의 직원 또는 계약자는 주 또는 연방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학생의 동의 없이 이들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혹은 성 표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또한 "동의 없이 학생들(의 성적 지향 등)을 강제로 공개하는 정책은 LGBTQ+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신뢰를 쌓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를 방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창세기 44: 30-21)

하나님,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하여 생명으로 결탁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불신으로 만드는 악한 법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며 사랑으로 돌보며 보호받는 일이 당연한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며 다음세대를 성 정체성이라는 거짓된 속임으로 병들게 하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소서. 동성애의 악한 좀이 미국 교회에까지 파고들어 간 이때 더욱 교회와 부모세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로 싸워 어린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보호하옵소서.

▲ 한국 질병관리청, 국내 엠폭스 확산 경로 남성 동성애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엠폭스 감염자의 절대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끼리 성관계를 통해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HIV 연구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엠폭스 환자 유전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질병관리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는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 첫 엠폭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엠폭스 진단과 유전체 감시 업무를 맡았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 간에 엠폭스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이 확인된 사례의 약 99%는 남성이 차지했는데 대부분 동성애자인 것으로 보고됐다. 엠폭스는 피부와 성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돼 왔는데 이번에 구체적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로마서 6:12-13)

하나님, 질병관리청을 통해 엠폭스의 구체적인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난 소식 앞에 동성애자들이 깨어 육체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한국에 점점 퍼져가는 동성애의 거친 파도를 성도들의 깨어있는 기도로 막아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진 복음이 이들의 어두운 심령을 깨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 주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전에 사지 내몰린 로힝야족…선택 여지없어

미얀마 군부와 반군의 격렬한 전투 속에 로힝야족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은 지난 16일 로힝야족이 주로 거주하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마웅도 지역 주민에게 모두 떠나라고 통보했다.

라카인주에서 미얀마군과 교전 중인 아라칸군은 마웅도 공격을 예고하며 “안전 우려로 모든 주민에게 즉각 대피하라고 권고한다”고 밝혔다. 라카인주 북단에 위치한 마웅도에는 로힝야족 약 7만 명이 거주 중이다. 마웅도와 멀지 않은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는 로힝야족 난민촌도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가 난민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를 꺼리고 있어 마웅도의 로힝야족은 오갈 데 없는 신세다. 로힝야족 위기에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아라칸군이 마웅도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로힝야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도망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아라칸군은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과 함께 지난해 10월 말 북동부 샨주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대규모 합동 공격을 시작했다. ‘1027 작전’으로 불리는 이 공격 이후 반군이 전방위 공세에 나서면서 미얀마군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아라칸군은 샨주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접한 라카인주에서도 주요 도시를 점령하며 미얀마군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라칸군이 로힝야족 마을에 진입해 폭력을 가하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으로 오래전부터 탄압받았다. 2017년 미얀마 군 소탕 작전 등을 피해 약 75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하기도 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시편 70:5)

하나님, 미얀마의 격렬한 내전으로 사지에 내몰려 갈 곳도 그들을 받아 줄 곳도 없는 곤고한 상황에 놓인 로힝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들의 궁핍함을 돌봐 주십시오. 자신의 원함을 위해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군부와 반군 간의 싸움을 속히 멈춰 주시고 폭력과 분노로 이들을 부추기는 악한 사탄을 꾸짖어 주시고 권세를 파하여 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셔서 보화 되신 주님을 전부로 얻어 비록 땅에서 고달픈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라이베리아 연합감리교회, 동성결혼 축복·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라이베리아 연합감리교회(UMC)가 동성결혼 축복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전했다. 라이베리아의 사무엘 J. 쿠이레 주니어 감독은 이번 달 초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연합감리교회 라이베리아 연회는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밝힌 이들의 결혼식이나 안수식을 거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감리교회 라이베리아 연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전통적이며, 어둠 속에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전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라이베리아의 모든 연합감리교회 성도와 라이베리아 국민에게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자 교회가 아니며, 구원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을 돌보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밝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고린도후서 13:7-8)

하나님, 총회의 결정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선포한 라이베리아 연합감리교회를 응원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악한 사상들을 뒤섞는 혼미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진리를 밝혀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결정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게 하시고, 거슬러 어그러진 길로 가던 자들에게는 회개와 돌이킴의 계기가 되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 브라질 대법원 "대마 개인적 소지 범죄 아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개인적 용도로 대마(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26일 현지 매체 G1 등을 인용해 전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25일 브라질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 중 8명이 대마 개인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하급심에 계류 중인 6,345건의 재판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보도했다. 기소 전 단계에 있는 관련 사건까지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결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마약 밀매상과 구분되는 개인적 소지 허용량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마의 의약적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우루과이는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호세아 14:1-2)

하나님, 대마 소지가 불법이었던 브라질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한순간 합법이 되어 수많은 하급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더 큰 범죄를 불러올 수 있는 이 일을 꾸짖어 주십시오. 대마중독과 이에 따른 육체적 고통에 대한 객관적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어 순간의 쾌락을 좇게 만드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시고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교회를 통해 외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날마다의 예배가 드려지는 브라질 되게 하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마스 공격 후, 신약성경 주문한 이스라엘인 증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단체 ‘예수를 위한 유대인’(Jews for Jesus)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신약성경을 주문하는 이스라엘인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메시아닉 주(예수를 믿는 유대인)운동에 소속된 이 단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다.

이 단체 국제본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뉴욕, 런던,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전 세계 도시에 다양한 지사를 두고 있다. 이 단체는 대학 캠퍼스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에 관해 대화하고, 또 이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행사를 연다. 여러 사역과 자선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 단체는 웹사이트와 사역 파트너인 ‘원포이스라엘’(One for Israel) 또는 ‘생명나무사역’(Tree of Life Ministries) 사이트를 통해 이스라엘인들에게 무료로 신약성경을 제공한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제공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후 이 단체는 이스라엘인들로부터 1,230건의 신약성경 주문을 받았다.

‘예수를 위한 유대인’ 애런 에이브람슨 전무이사는 “신약성경의 주문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인들이 영적인 질문을 포함해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해결책도, 군사적 해결책도, 경제적 해결책도 믿을 수 없다면 어디에 신뢰를 두고 있는가?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이 단체는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 같은 단체와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있다. 그러나 논란도 없지 않았다. 에이브람슨은 “우리 단체가 유대인을 상대로 예수를 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부 정통 유대 공동체로부터 반발을 샀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우리 단체가 예루살렘에서 봉사 활동을 시도했을 때, 약 2-30명으로 구성된 예시바 전체가 우리를 막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예시바는 일반적으로 탈무드와 같은 저작물 연구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유대인 교육 기관이다. 그는 “그래서 난 사람들에게 다음 몇 가지를 권장한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대화하고 말을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노력해 보라. 여러분은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항상 뿌릴 수 있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로마서 10:17,20-21)

하나님, 전쟁으로 곤고한 자들의 심령 안에 영적 갈급함을 허락하사 신약성경을 찾게 하신 이 일은 이스라엘에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주의 사랑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는 이마다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십자가 비밀을 밝히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의 죽음과 부활에 믿음으로 동참하여 구원 얻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단체들이 기도하며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영혼이 주를 만나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이뤄주소서.

▲ 영국 간호사들, 생물학적 남성과 탈의실 공유하도록 강요당해

여성 간호사들이 여성으로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과 탈의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영국의료법인 NHS 트러스트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달링턴 메모리얼 병원의 간호사 5명은 반대 성별로 동일시하는 직원들이 개인용 칸막이가 없는 단일 성별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에 접근할 수 있는 병원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 성적 학대를 경험한 취약한 여성들을 포함한 여성 직원들에게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을 관리하는 더럼 카운티와 달링턴 NHS 재단 트러스트를 상대로 성희롱 및 성차별 혐의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26명의 간호사들은 병원의 인사팀 관리자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편지를 썼지만 "교육을 받고 타협하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그들은 인사팀 회의에서 "협박"과 "위협"을 느꼈으며, 발언한 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디모데전서 1:19-20)

하나님, 생물학적 남성과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을 함께 공유하여 타협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협박 수준으로 타협을 강요하는 영국의료법인을 책망하여 주시고 간호사들의 마음과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영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께 고하오니 하나님에 대한 양심과 신앙을 버린 이 땅을 진리로 회복시켜 주셔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시길 간구합니다. 영국 교회가 주의 교훈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 이들의 삶이 이 땅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그 빛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이탈리아, 중국 인신매매 조직 적발…"여권 압수 후 노예처럼 부려"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이탈리아로 중국 사람들을 밀입국시킨 다음, 이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노예처럼 부린 중국 인신매매 조직이 적발됐다고 뉴스1이 27일 AFP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이탈리아 경찰은 2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중국 인신매매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 비자 면제를 받고 입국한 국가(주로 세르비아)에서 소그룹으로 유럽 외부 국경으로 이동하는 중국인들의 지속적인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들은 차를 타고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를 거쳐 이탈리아 국경까지 이동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신매매 조직이 은신처에서 여권을 압수한 뒤 밀입국자들이 유럽에 오기까지의 빚을 갚을 때까지 심각한 착취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유 생활도 없이, 의료 지원도 없이, 침대와 일할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밀입국자들이) 무기한 구금돼 있었다"며 일종의 '노예'라고 묘사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스가랴 8:16-17)

하나님, 사연은 다르지만, 세상이 주는 부요함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 올무에 걸려 구금과 착취를 당한 밀입국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의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악을 도모하며 거짓 맹세로 자신의 동족을 해하여 미움과 원망을 쌓고 있는 인신매매 조직을 꾸짖어 주시고 탐심으로 인한 무감각한 영으로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사탄을 파하여 주소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이탈리아 성도들을 통해 디아스포라들에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다른 이방 백성들을 주께 인도하는 유다 사람 하나로 세워주소서.